

한 눈으로 보는 경제			7일
코스피지수	2021.73	▲ +1.04	
코스닥지수	627.21	▲ +5.37	
환율 (원·달러)	1197.00	0	

비즈 패트를 | 뒤늦게 'DLF사태' 재발 방지 개선안 내놓은 은행권

수익성→소비자 보호...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금감원, DLF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불완전판매 여지 사례 다수 포착
우리·KEB하나 일제히 대책 내놔
"신뢰회복 위해 분쟁조정절차 협조"

은행권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낳은 해외금융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이 수익 확대에만 급급해 DLF상품의 위험성 설명 등 고객보호에 태만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부랴부랴 내놓은 수습책이다. 금융상품 판매실적 등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 운영방침에서 벗어나 앞으로 조직 신설, 성과지표 수정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태의 DLF 판매사인 우리은행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해외금융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과 같은 날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 판매 규탄 기자회견 모습. 은행권이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뉴스



은 고객 자산관리 체계 추진 방향을 '고객 케어 강화'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서비스 만족도, 고객 수익률 개선도 등 고객 중심 평가지표로 바꾼다. 고객 투자상품 전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수익률이 위험 구간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객 투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DLF 판매사인 KEB하나은행 역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천명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본점 내 고객 투자 분석센터를 신설하고, 직원 대면상담 이후 본점 승인단계를 거쳐 함으로써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투자 상품은 예금자산 대비 투자 한도를 설정해 고객 자산이 고위험 상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지성규 KEB하나은행

장은 "은행을 믿고 거래해 준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분쟁조정절차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KB국민은행은 상품심의절차 강화를 위해 상품위험회를 업그레이드한다. 상품을 심의하는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투자 상품의 리스크를 살피기 위해 투자상품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아시아나, 대만 가오승 정기노선 취항 27일부터 전환...클룩과 이벤트도 진행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인천-가오승 구간을 정기 노선으로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9월 24일부터 A321 항공기를 투입해 인천-가오승 구간에 부정기편을 운영해 왔다. 동계 여객 스케줄이 적용되는 10월 27일부터 이 구간을 정기노선으로 전환해 주7회 운항한다. 대만 제2의 도시인 가오승은 무역항구 도시로 오래된 역사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명소다. 대만 불교의 본산인 불광산사와 접인대불, 화려한 사원들이 몰려 있는 연지담, 대만 3대 야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리우허 야시장 등이 유명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가오승 정기취항을 기념해 11월 15일까지 액티비티 플랫폼 클룩과 함께 여행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대만 관련 '감성 충전 사진 올리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포르투갈 리스본(10월)과 호주 멜버른, 이집트 카이로(12월)에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정기 직항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삼성, 하만카톤 프리미엄 홈 오디오 출시



삼성전자가 하만 카톤의 프리미엄 홈 오디오 '사이태이션'(사진)을 22일 국내 출시한다. 65년 전통을 자랑하는 하만의 음향기술을 비롯해 프리미엄 디자인, 서라운드 사운드, 스마트 기능을 적용했다. 출시 모델은 사운드 타워, 사운드바, 포터블 오디오 등 공간과 용도별로 8개다. 사이태이션은 프리미엄 패브릭 브랜드 크바드라트 커버에 알루미늄 소재를 더해 북유럽 감성의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iF 디자인 어워드와 EISA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글로벌 주요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여러 대의 오디오를 하나의 그룹으로 손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멀티룸 시스템 기능과 음성인식 기능, 컬러 LCD 터치 스크린 등을 지원한다. 가격은 29만 9000원에서 330만 원까지다.



LGU+, 연말까지 5G 전시관 전면 개방

LG유플러스는 서울 용산사옥의 U+5G 전시관(사진)을 연말까지 전면 개방하고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체험관 투어를 진행한다. 투어는 5G B2C 서비스와 5G B2B 솔루션 등 5G 기반 서비스를 비롯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스피커, U+tv 아이들나라 등 홈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약 30분 가량 소요되며 이후 자율체험도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대 1회 30명까지 가능하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lhuki@donga.com

※ 교육·퍼즐은 9면에 옮겨 실었습니다

하반기 대작 '달빛조각사' 출시...탄탄한 IP로 기대감 상승

'달빛조각사'가 하반기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전쟁의 포문을 연다. 카카오키프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달빛조각사'를 10일 출시한다. 최근 사전 예약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게임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대작과 거장의 만남' 때문이다. '달빛조각사'는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수 530만 명의 동명 베스트셀러 판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한다. 또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로 유명한 스타 개발자 송재경 대표가 제작한 게임이다. 게임은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과 아지자기한 그래픽, 다른 게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동명 베스트셀러 판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MMORPG '달빛조각사'가 10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로 유명한 스타 개발자 송재경 대표가 제작한 게임으로, 사전 예약자 수 300만 명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카카오키프

며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원작의 주인공 위드와 함께 모험을 하고, 사냥과 던전, 그리고 토너먼트 방식의 대전을 벌이는 기

사단장 선발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전투도 즐길 수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콘텐츠는 '파밍'이다.

10일 정식 출시...사전예약 300만 돌파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직업 '조각사' 신선편

게임 내 모든 모험 활동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활동 별로 각기 다른 아이템을 얻게 되는 만큼 '이번엔 어떤 것을 손에 넣을지' 기대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낚시와 하우징 등 생활 콘텐츠도 풍성하다. 다른 게임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 콘텐츠 '조각'도 있다. 이용자들은 '조각 제작 의뢰'를 하거나 모험 중 아이템 획득을 통해 조각을 얻어 하우스를 꾸미고 다양한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또 재료를 가지고 직접 조각을 할 수도 있다. 전사와 마법사, 궁수, 성기사 외에 게임 세계에선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직업 '조각사'가 등장하는 것도 흥미 요소다. 한편, 카카오키프는 9일 오전 10시부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얼굴로 결제하고, 포인트로 체크카드 발급하고..."

(신한카드) (하나카드)

금융위 선정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운영

카드업계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추가 선정된 것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 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연내 생체정보 기반 '페이스페이'(Face Pay) 지급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카드와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시스템 카메라에 얼굴을 대면 신원을 자동인식해 결제를 진행한다. 신분카드나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 편리성이 높아지



신한카드의 '페이스페이' 지급결제 서비스. 사진제공 | 신한카드

고 지급수단의 분실 및 파손 위험이 없어 금융거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안면 정보를 등록하기 위

해 필요한 복잡한 실명 확인 과정을 휴대 폰 앱 인증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 교내 가맹점에서 2년의 시험 기간을 거친 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2020년 1월 금융거래 계좌가 없어도 보유한 포인트만을 연계해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온라인 포인트 가맹점뿐 아니라 오프라인 신용 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잔액 부족 시 포인트 충전과 제휴사 포인트 전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포인트 사용처가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편의 증대, 소멸 포인트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롯데카드 '원 파인 데이: 와인' 진행

롯데카드가 10월 한 달간 '원 파인 데이: 와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회비 10만 원 이상의 롯데 프리미엄카드 소지 회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 와인매장에서 롯데 프리미엄카드로 누적 5만 원 이상 구매 시 합산금액의 40%를 캐시백한다. 또 제휴 와인바 및 레스토랑에서 롯데 프리미엄카드 결제하면 금액의 최대 20% 현장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전 예약 후 방문해 메뉴 주문 전 롯데 프리미엄카드 이용임을 전달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정정욱 기자